

SK플라즈마, 인니에 3000억 규모 혈액제제 공장 짓는다

외국정부 포괄적 사업권 첫 사례
연간 100만리터 원료 혈장 규모
혈액제제 자급화 가능해질 전망

혈액제제 사업을 진행하는 SK플라즈마가 인도네시아에 3000억원 규모의 혈액제제 플랜트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SK플라즈마는 인도네시아 보건부로부터 혈장 분획 공장 건설과 관련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출은 2019년부터 이어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협업을 통해 이룬 성과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위탁생산, 기술수



SK플라즈마 인도네시아 혈액제제 공장 조감도.

출, EPC, 현지 운영까지 외국 정부의 포괄적 사업권 낙찰을 거둔 첫 사례로 꼽힌다.

SK플라즈마는 혈액제제 제조·설비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혈액제제 제조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를 대상으로 플랜트 기술 수출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성사된 플랜트 수출 규모

는 약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원)에 달한다.

SK플라즈마의 혈액제제 공장은 연간 100만리터의 원료 혈장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혈액제제 자급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의 시장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혈액제제는 혈액을 원료로 한 의약품으로, 과다 출혈에 따른 쇼크,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혈우병 등 다양한 분야의 필수 치료제로 사용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지진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알부민이나 면역글로불린 같은 혈액제제가 광범위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기도 하다.

SK플라즈마는 SK에코엔지니어링과 함께 EPCM(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관리) 형태로 공장을 건설하고 혈장 분획과 관련한 기술도 함께 이전할 계획이다.

SK플라즈마는 현지에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해 공장 운영을 포함해 사업권·생산·판매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현지화 이후에는 인도네시아 관련 규정에 따라 독점 공급도 가능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SK 플라즈마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수입되는 혈액제제 전량을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혈장으로 생산해 국민들에게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제 투약 80% 돌파

강스템바이오텍 ‘퓨어시스템-에이디’
2024년 내 국내 품목허가 승인 목표

강스템바이오텍이 개발하는 세계 최초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시스템-에이디주’ 개발이 임박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퓨어시스템-에이디주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투약환자가 250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퓨어시스템-에이디주 임상 3상은 아토피 피부염의 근본적 치료를 목표로 국내에서 총 308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제까지 전체 목표대상자의 80% 이상인 250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완료됐고, 기존 치료제에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서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회사는 2분기 내 투약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내 탑라인 데이터를 확보해 2024년 내 국내 품목허가를 승인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JP모건 컨퍼런스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 행사를 통해 퓨어시스템-에이디주에 관심을 보인 빅파마와 라이선스 아웃, 해외지역 판매 등을 추진하고자 이번 임상 3상 진행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퓨어시스템-에이디주는 땀줄 혈액에서 채취한, 성체줄기세포 중 가장 건강하고 어린 줄기세포를 원천으로 한다. 주목할 점은 특정인자만을 억제해 증상

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닌 PGE2, TGF-beta 등과 같은 면역조절인자를 분비해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에 관여하는 TH2 세포, 비만세포, B세포 등 여러 면역세포의 활성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이에 환자의 면역기전을 정상화하여 기존에 없던 근본적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회사측은 영하 70도 이하로 유통되는 동결제형으로 우수한 세포활성을 가진 치료제를 세포은행 구축 완료로 통해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 품질 특성과 대량생산 능력을 확보하여 기존 아토피 치료제와 비교해 연간 환자당 치료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유방재건 수술 후 괴사 줄일 가능성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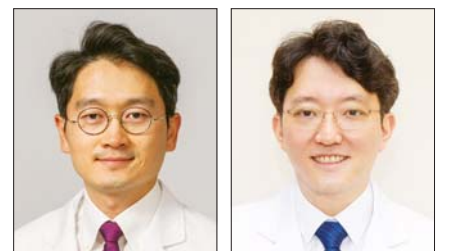
이대목동병원

천공지 혈관 위치 따라 혈액공급 좌우

국내 연구진이 유방재건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지방괴사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냈다. 이대목동병원 성형외과 우경제 교수와 박진우 교수 연구팀은 유방재건수술 시 사용하는 천공지 혈관의 위치에 따라 이식조직의 혈액순환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해 최근 SCI 국제학술지인 글랜드 수술지에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중 복부피판을 이용하는 방법인 심하복벽 천공지 피판 시행 시 피판에 포함되는 천공지 혈관 위치를 분석해 지방괴사를 감소시킬 방법을 찾은 것이다.

연구팀은 이대목동병원에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심하복벽 천공지 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을 시행 받은 6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인 그린 혈관조영술’을 통해 피판 내 천공지 혈관의 위치에 따른 혈액 공급 양상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조사했



우경제 성형외과 교수 박진우 성형외과 교수

다.

그 결과 유방재건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지방괴사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부조직에 혈류를 공급하는 천공지 혈관의 위치에 따라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피판의 부위와 면적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심하복벽 천공지 피판술 시행 시 피판에 포함시키는 천공지 혈관의 수직 위치에 따라 피판에 대한 혈액 공급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연구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피판의 혈액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세경 기자

정관장

‘내 생일에 효도해요’

KGC인삼공사는 ‘NEW 생일문화’ 전개를 위해 ‘생일이 된다, 어른이 된다’ 캠페인을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관장 생일 캠페인은 자신의 생일날이 축하와 선물을 받는 날이었다면 이제는 부모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날로 바꾸자는 뜻을 담고 있다. 정관장은 내 생일에 가장 아꼈던 어머니, 어께가 무거워졌을 아버지 등을 위한 감사의 선물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생일을맞은정관장 멤버스 고객에게 등급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물론,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정관장 홍삼정(240g), 홍삼톤골드(30포), 에브리타임(30포), 화애락진(30포)를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개당 1만원의 가격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정관장은 새로운 생일 문화 제안을 위한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엄마편’, ‘아빠편’ 2편을 선보이며 모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야기를 담은 보편적인 가족애를 울림있게 표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차바이오텍 오상훈 대표가 8일 열린 ‘CHA 바이오 헬스케어 데이’에서 차헬스케어 사업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차바이오그룹 유전자치료제 글로벌 시장 공략

美 CDMO 규모 4배 확장

차바이오그룹이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과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미국 현지에서 2024년까지 생산용량을 4배로 확장해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차바이오그룹은 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CHA 바이오·헬스케어 데이’ 행사를 열고 이와 같은 국내외 사업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 앤드류 어리지 최고사업책임자(CC

O)가 향후 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마티카 바이오는 미국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시장 진출을 위해 차바이오텍이 세운 자회사다. 2022년 텍사스에 500㎡ 규모의 CDMO 시설을 준공한 이후 2022년 하반기에만 8건의 CDMO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도 다국적 빅파마 4곳을 포함해 40개 이상의 기업과 계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마티카 바이오는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매출을 늘리기 위해 1공장의 두 배 이상 규모의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 2공장이 완공되면 현재 500㎡ 규모의 생산용량이 2000㎡까지 확대된다./이세경 기자 seilee@

물류비 상승에 햄버거값 줄줄이 올라

버거킹 와퍼 6900원→7100원
맘스터치 싸이버거 4600원으로



버거킹이 10일부터 원자재 및 물류비 등 제반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가격이 인상된 메뉴는 버거류 32종, 사이드 및 음료 15종 등 총 47종이며, 평균 인상률은 2.0%이다. 대표적으로 와퍼가 6900원에서 7100원으로, 갈릭불고기 와퍼가 7300원에서 7400원으로, 와퍼 주니어가 4600원에서 4700원으로, 프렌치 프라이가 2000원에서 2100원으로 오른다.

버거킹 관계자는 “원자재 및 물류비 등 제반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

상하며,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며 “버거킹은 앞으로도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맘스터치도 7일부터 전체 78개 품목 중 43개 메뉴 가격을 평균 300~400원씩 올렸다.

대표 품목인 버거류의 평균 인상률은 5.7%이며, 시그니처 메뉴인 ‘싸이버거’ 단품이 4300원에서 4600원, ‘그릴드 비프버거’는 4900원에서 5100원, ‘불고기 버거’가 3500원에서 3900원으로 조정됐다.

앞서 지난 2월 롯데리아가 물류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제품 판매 가격을 평균 5.1% 인상했으며, 맥도날드도 5.4% 가량 가격을 인상했다. 노브랜드와 KF C도 지난달 일부 메뉴 가격을 조정했다.

/신원선 기자